학생·학부모·교사·지역민 함께 한 '수학 나들이'

양산체험수학축전, 5만 여명 참가 성황

전국 최초, 사각바퀴 자전거 수학콘텐츠 선보여

경상남도교육청이(교육감 박종훈) 주최한 '2016 양산체험수학축전'이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5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8-9일 이틀간 양산 워터파크 일원에서 열린 제4회 양산체험수학축전은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부스,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운영한 부스 등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국에서 수학축제를 찾는 발길이 이어져 학습축제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했다는 평가다.

이번 체험수학축전은 기존 체험전과 달리 대형 교구를 많이 선보였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수학을 직접 체험하며 수학교육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 부스 19개와 전국부스 17개 등 100여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초·중등 체험수학 탐구대회, 수학구조물 전시회, 가족과 함께 함께하는 수학나들이, 매쓰 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경상남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기변형으로 만들어진 원형현수선 도로 위에 사각바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수학콘텐츠'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축제 이틀날 박종훈 교육감도 남해 삼동초등학교 학생 20여명과 함께 이 사각바퀴 자전거 타기 체험을 하며 변화하는 수학에 대해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전국 최초로 '학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체험수학부스'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기존 수학체험전은 수동적으로 참가해 수학에 대한 생각이 별반 깊지 않았다. 이번에 가족과 함께 직접 부스를 운영하면서 수학이 그리 어렵거나 재미없는 공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됐다"며 즐거워했다.

이번 축전을 주관한 양산교육지원청 김점성 교육장은 "태풍 차바로 양산지역이 큰 피해를 입어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후진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는 선현들의 뜻을 받들어 학술문화 축전을 열었다"며 "그런 가운데서도 학생과 학부모 등 참가자가 대폭 늘고 호응도 매우 좋아 전국적인 학습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동한다사중, 개천예술제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최우수

경남 하동 한다사중학교(교장 정한규)는 지난 1일 제66회 개천예술제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에 20명이 참가하여 중등부 풍물 최우수를 수상했다.

미래교육에서 요구하는 융합적·통합적 사고를 촉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자유롭게 펼치는 시간이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고 나누며, 행복한 학교,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예술활동이 학생들의 삶이 예술로 이어지도록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3학년 김모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라 더욱더 신나게 할 수 있었고,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한규 학교장은 "감성으로 소통하는 문화예술이 학생들의 삶과 연계해 다양한 삶의 가치를 기르고, 문화·예술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며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호기 기자 khk@

창녕교육지원청, 장애학생인권 보호 연수회 개최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곽권태)은 10월 10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특수교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특수학급 담당교사,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자들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인권교육의 현장 성찰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수 강사인 국가인권위원회 강석권 조사관은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별사례를 소개하고, 인권교육의 개념과 장애인권교육의 방향성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곽권태 교육장은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서 장애학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관내 특수교육 담당자와 지원청 관계자의 팀워크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기를 당부했다.

거창교육지원청 중학생 독서토론체험활동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강신화)은 관내 중학생이 함께하는 '책 속의 즐거움을 찾아' 중학생 독서토론체험활동을 실시했다.

독서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중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의 모태가 되는 대구근대문화거리에서 생각나눔활동, 나만의 책만들기, 독서문제해결활동 등 다양한 독서 토론 활동이 진행되었다.

대구근대문화거리에 도착한 30명의 학생들은 안전교육을 받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듣고 '마당 깊은 집'의 내용에 등장하는 장소를 찾아 문제해결활동 하였다.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꽃피우다!

고성영재원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개최

고성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원장 김정희)은 10월 8일 고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영재교육원 학생과 학부모, 강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6.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는 팀별 프로젝트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수학·과학·발명에 대한 친근한 마인드를 형성하고 창의성 계발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영재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재강사에게는 영재교육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가 팀은 수학과학영역 '시온물감의 원리탐구' 등 8팀과 발명영역의 '캠핑장 폐열회수 온수 제조장치 제작' 등 8팀이다. 이 중 최우수 1팀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개최하는 영재산출물 발표대회 본선에 참가하게 된다.

창의적산출물발표대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전공영역에 대한 탐구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수학과학 및 발명영재 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정희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발표회를 통해 영재교육과 발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보교육을 통한 교수·학습지도 방법 개선으로 영재강사의 역량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제38회 경남교육상 후보자 추천받아

학교경영·교육연구·학생지도·교육여건 조성 등 4개 분야

경남교육청은 제38회 경남교육상 후보자 추천을 11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10일 도교육청은 경남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에게 제38회 경남교육상을 수여함으로써 사회의 귀감이 되는 교육자 상을 정립하고 교육자의 사기 앙양과 건전한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교육상은 교육과 관련한 경남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1979년 4명을 선정,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7회에 걸쳐 모두 17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경영, 교육연구, 학생지도, 교육여건 조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사 및 관리직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민간인 가운데 유공자를 찾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후보 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며 후보자 추천을 11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수상 대상자로 적격자가 있을 경우 각급 학교장, 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 중·고교협의회장, 경남교원단체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담당관, 직속기관장은 도교육청에 추천하면 된다.

경상남도교육청공적심의회에서는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 공적사항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5명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상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연말에 교육위원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교육청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남교육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은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268-1126)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교육청은 "직위와 직급 중심의 유공자 선정에서 벗어나 현장교육 중심의 학생교육에 헌신한 공적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교단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였거나 지역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도민들이 많이 추천되기를 바란다"면서 "경남교육상의 명성에 걸맞게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봉사한 도민에게 시상될 수 있도록 경남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은 나눔 큰 사랑

진주촉석초, 나눔day 실시

경남 진주 촉석초등학교(교장 허연수)는 지난 6일 등교시간에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푸드뱅크)와 연계하여 전교생 804명을 대상으로 나눔 인식확대를 위한 '1인 1사랑 나눔day'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결식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부활동은 나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 환경조성에 기여했다.

촉석초 학생들은 이날 행사에 앞서 담임교사로부터 내가 물건을 아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면 다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나눔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등교할 때 쌀, 라면, 비누, 의류, 도서 등의 생필품을 가져와 나눔 바구니에 넣었다. 이 기부물품들은 우리 진주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 중학교 결식아동 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허연수 교장은 "우리 촉석 어린이들이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기르고,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이러한 나눔 활동은 학생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호기 기자 khk@